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

The Consumer Skills of the Poor Farm Households' Homemakers in Korea

서울대학교 농생대 농가정학과

박사과정 : 盧 紫 敬

Dept. of Agri.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Ja Kyoung, Koh

서울대학교 농생대 농가정학과

교수 : 崔 銀 淑

Dept. of Agri.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 Eun Suk, Choi

본 연구는 경제적 자원의 결핍과 열악한 시장환경으로인해 소비의 효율성 발휘에 제약이 받고 있는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을 평가하고, 관련 변수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농촌지도 실무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추천받아 농가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총 44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빈도 분포,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최소유의차검증, 중분류분석 등의 결과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은 비빈곤농가 주부에 비해 낮았으며, 소비자기능은 주부의 학력과 연령, 가계관리자 유형, 주관적 관리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소비자기능의 하위영역별로 볼 때, 빈곤농가 주부는 지출비목별 예산수립, 정기적인 저축, 구매품목의 사전결정, 가격·상표·제조년월일의 확인, 사용방법·주의사항·보증내용의 확인, 영수증 확인 및 보관, 가계부기록·확인, 아파트서비스 요청 항목에서 모든 비빈곤농가 주부 보다 낮은 기능점수를 보였고, 인적정보 활용, 충분한 상점탐색 항목에서는 부분적으로 낮은 기능점수를 보였다.

I. 서 론

고도의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모두는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 다양한 생산과 소비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소비를 통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 수집과 선택 등의 문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어느 때보다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들어 가정학과 관련 학문분야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 상대적으로 구매력을 좀 더 보유하고 있는 도시나 일반소비자에 초

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이나 빈곤 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왔다.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의 효율성을 높일 때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나 합리적인 사용에 제약이 받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들의 경제적 복지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빈곤은 경제적 자원의 희소성에 의해 발생하며, 부족한 경제적 자원은 소비의 효율성이 낮을 때 빈곤을 지속 심화시켜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농가의 소득은 그 성격상 현금소득의 비중이 낮고 불안정하므로 농촌주민들은 자주 경제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제한된 구매활동 경험을 하며, 시장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고, 상품수와 질의 선택에 제약을 받으므로, 소비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빈곤농가의 낮은 소비효율성은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가계에 비해 가계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커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경제문제를 창출하고 빈곤을 심화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빈곤농가일수록 합리적인 가계관리와 효율적 소비가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과 시장환경면에서 효율적 소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빈곤 및 비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 수준을 측정 비교하고, 소비자기능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수 및 그 영향력을 규명하여, 빈곤농가의 경제적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의 고찰

소비자기능은 소비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자활동의 장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응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활동능력의 개념으로, 기존 소비자관련 연구에서 소비자능력의 하위영역으로 정의되어 왔다(Braun, 1979 : Dickinson, 1980 : 이기춘, 1985 등). 소비자가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적절한 지식, 태도, 이해력, 기능 등이 필요하나, 이들은 개별 소비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응용되고 실행될 때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소비자능력의 실천적영역인 소비자기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소비자기능은 실행의 개념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 측정되는데, 금전관리기능과 구매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대상소비자에 따라 척도의 구성내용이 조정되고 있다.

Turner(1976)는 소비자가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능으로서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방법, 구매지

불방법, 저축방법, 상품비교능력, 단위가격파악, 소비시기 조절 등을 들었고, 이기춘(1985)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능력 측정연구에서 금전관리와 구매의 2개 영역에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소비자기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시 저소득층 주부소비자의 경제문제를 연구한 윤정혜(1986)도 금전관리기능과 구매기능의 영역에서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경제문제를 연구한 김경자 등(1986)은 정보의 획득과 사용, 비교구매, 구매계획, 불만처리, 제품의 보관과 사용에 관한 5개 영역의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소비자기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실제 행동을 통해 소비자기능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빈곤층 소비자의 기능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Barnhill(1972)과 Schnapper(1967)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구매와 관련된 기술적 측면의 지식 및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해수준이 특히 낮다고 지적하였다. 광동성(1981)은 우리나라 하류층의 주부들이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가격을 품질의 지표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고, 윤정혜(1986)는 우리나라 빈곤층소비자들의 인축기능이 높은 반면 예산기능과 구매기능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김경자 등(1986)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다른 소득계층의 소비자들에 비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장조정능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성숙(1989)의 연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층소비자들의 구매장소 범위가 제한적이고 탐색의 수준이 낮으며 신용구매나 외판구매를 통해 가격이 비싸고 비필수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기능은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인지능력, 가치지향 등 인적자원과 소득, 자산, 신용 등 경제적자원 및 시장이나 상점 등의 시장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층 소비자들을 다룬 일련의 연구들(Caplovitz, 1963 : Schnapper, 1967 : Barnhill, 1972 : Andreason, 1975 : Swagler, 1979 : 윤정혜, 1986 : 김경자 등, 1986 : 성지미, 1988 : 김성숙, 1989 등)에서는 빈곤층 소비자들의 낮은 교육수준, 경제자원부족으로 인한 구매경험의 미약, 상품정보를 접할 기회의 부족, 운명론적 가치지향

등이 낮은 소비자기능과 관련됐음을 보고하였다. 즉, 빈곤소비자들은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시장매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며 전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작으므로 시장에서의 대항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간과 경비, 경험이 부족하고 기동력이 부족하며 교육 및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에서 제외되고 편견과 차별을 받아 더욱 취약해지게 되므로, 결국 빈곤소비자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소비자 기만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은 시장환경과의 관계속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낳을 수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농촌에 대한 소비자보호원(1988, 1989)의 전국적 조사자료에 의하면 시장환경내 소비자기능문제가 특히 농촌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소비자는 구매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원을 더 많이 참고하고, 비내구재 구입에 있어 상표나 가격을 중시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생활권내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프터서비스의 경험이 매우 낮으며 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농촌의 시장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지만, 도시에 비해 시장이나 상점의 수가 다양하지 못하고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는 농가에 있어 상점이나 시장의 선택은 경제적 자원 외에도 지리적 여건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경제자원의 부족, 교육수준 및 구매경험의 부족, 시장환경의 열악성 등이 빈곤농가의 소비자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소비의 효율성을 낮추고 또다른 빈곤을 심화시킬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소비자관련 연구들이 도시나 일반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농가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빈곤 및 소비자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계를 비롯하여 임차농과 영세농 등 일반빈곤농가를 포함하고, 경제자원의 파악을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소비자기능뿐 아니라 하위영역별 소비자기능수준을 빈곤농가와 비빈곤농가간에 비교함으로써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 문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관련 변수 규명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1. 용어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가유형 : 경제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분류된 빈곤 및 비빈곤(경제적 중하위, 중상위, 상위)농가. 소득이 불규칙하고 현물소득의 비중이 높은 농가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자산으로 인한 소비의 잠재성을 고려하고자 소득과 자산 모두를 고려하였다.

빈곤농가 : 상대빈곤이론¹⁾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빈곤선 이하의 농가로서, 표본농가를 소득과 순자산별로 각각 하위 30%²⁾, 중위 40%, 상위 30%³⁾의 하·중·상 집단으로 분류하여 1, 2, 3점을 주었을 때 소득과 순자산 점수의 합이 3점 이하인 농가.

비빈곤농가 : 본 연구에서 선정한 빈곤선 위에 위치하는 농가로서 소득과 순자산 점수의 합에 의해 분류된 경제적 중하위(4점), 중상위(5점), 상위농가(6점).

소비자기능 : 소비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자활동의 장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응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활동능력으로 예산수립, 구매, 금전관리, 소비자행동 등과 관련된 12개 문항을 5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0점에서 100점으로 표준화한 점수⁴⁾. 크론바하의 α 값은

- 1) 일반적으로 평균소득(혹은 중위소득)의 1/2이나 1/3 또는 소득의 하위 20%나 40% 가계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봄
- 2) '93 전국 농가 평균소득의 1/2 및 하위 20% 수준과 평균 순자산의 32% 수준
- 3) '93 전국 농가 평균소득과 순자산의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 4) 척도점수를 0에서 100점으로 표준화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척도획득점수} - \text{척도최저점수}}{\text{척도최고점수} - \text{척도최저점수}} * 100$$

.65로 사용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연구문제 1> 빈곤농가의 경제적 자원 및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비빈곤농가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은 비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빈곤 및 비빈곤농가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소비자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빈곤농가 주부의 하위영역별 소비자기능은 비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연구 절차

빈곤의 개념 및 측정 방법의 고찰을 위해 기존 빈곤관련 문헌연구를 수행하였고, 1993년 12월 14일에서 1994년 1월 18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의 5개 마을을 방문하여 관찰과 면접을 통한 예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빈곤지표를 검토한 후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 조사대상가계를 선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도농촌진흥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경기, 강원, 충남, 충북의 4개도에서 도시근교, 평야, 중간 및 산간지대별로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을 추천받았다. 본조사는 1994년 4월 21일에서 4월 29일에 걸쳐 농가주부가 가족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비농가 및 부분적으로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총 44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패키지인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최소유의차검증, 중분류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본 절에서는 먼저 빈곤과 비빈곤 각 농가의 소득 및 순자산 정도와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을 비빈곤농가 주부와 비교해 보고, 주부의 소비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평가해 보았다.

1. 농가유형별 소득 및 순자산 평균치

다음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빈곤농가의 연간 총소득 평균은 670만원으로, 1993년 전국 농가의 연평균소득 1,693만원 및 전국 도시근로자의 연평균소득 1,773과 비교해 볼 때 40%가 못 되는 수준으로, 표본농가 중하위집단의 1/2, 상위집단의 1/4수준으로 나타났다. 빈곤농가의 순자산 평균은 3,583만원으로, 1993년 전국 농가의 평균 순자산 12,637만원과 비교해 볼 때 30%가 못되는 수준이며, 표본농가 중하위집단의 1/2, 상위집단의 1/6수준으로, 농가유형에 따라 소득 보다 자산의 격차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가계를 중심으로 표집되었음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빈곤농가 및 비빈곤농가 분류기준이 각 집단간 경제자원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줄을 확인하는 것이다.

2. 빈곤농가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빈곤농가 주부의 연령

주부의 연령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서 빈곤농가 주부가 비빈곤농가 주부 보다 연령이 높았으며, 비빈곤농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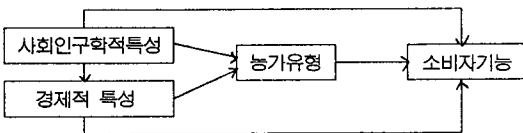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표 1. 농가유형별 소득 및 순자산 평균치

(단위 : 만원)

구 분	빈	곤	중 하 위	중 상 위	상 위	F 값
총 소득	669.6 a	1,259.1 b	1,680.2 c	2,687.7 d	126.8***	
순 자산	3,583.5 a	7,170.3 b	11,961.5 c	20,711.2 d	126.4***	

***P<0.001

서는 중하위농가가 중상위 이상 농가 보다 부인의 연령이 약간 높았다.

2) 빈곤농가 주부의 학력

주부의 학력 분포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빈곤농가가 비빈곤농가 보다 상당정도 낮아, 빈곤농가의 부인은 국졸 이하가 59%에 달하며, 고졸 이상의 학력은 11%에 불과했다. 비빈곤농가에서는 상위로 갈수록 학력이 높아졌다.

3) 빈곤농가 주부의 주관적 관리능력

농가유형별 주부의 주관적 관리능력은 표 4와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빈곤농가의 주부는 학력이 낮지만,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가계관리 경험이 축적될 수 있으므로, 학력과 연령의 영향력이 상쇄된 결과로 보여진다.

4) 빈곤농가의 가계 관리자

농가유형별 가계관리자는 다음의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빈곤농가와 중하위 농가의 경우는 부인이 단독 또는 남편과 공동으로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각각 68.9%와 67.8%로 중상위와 상위농가의 72.5%와 77.2%에 비해 적은 반면, 남편이 단독으로 가계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가계관리의 경험이 중상위이상 농가의 주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

농가유형에 따라 소비자로서의 기능이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생활과 관련된 1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하여 주부의 소비자기능점수를

표 2. 농가유형별 주부의 연령 분포 (단위: %)

구	분	빈	곤	중	하	위	중	상	위	상	위
주	부	-39세	27.3		31.6		50.0		49.3		
		40-49세	50.6		53.8		45.3		40.3		
		50세 이상	22.1		14.5		4.7		10.4		
		계	100.0		100.0		100.0		100.0		
연	령	평균(중앙값)	43.6(42.0)		42.6(41.0)		39.9(39.5)		40.7(40.0)		
		$\chi^2=28.5^{***}, df=6$									

표 3. 농가유형별 주부 학력 분포 (단위: %)

구	분	빈	곤	중	하	위	중	상	위	상	위	
주	부	국	졸	이	하	59.1		48.7		31.3		31.3
		중	졸	이	하	29.9		43.6		45.3		31.3
		고	졸	이	상	11.0		7.7		23.6		37.3
		계			100.0		100.0		100.0		100.0	
$\chi^2=48.2^{***}, df=6$												

표 4. 농가유형별 주부의 주관적 관리능력 (단위: %)

구	분	빈	곤	중	하	위	중	상	위	상	위													
주	부	의	주	관	적	관	리	능	력	전	혀	유	능	하	지	못	합(1점)	4.5		3.5		4.9		0.0
										별	로	유	능	하	지	못	합(2점)	14.1		16.8		13.7		15.4
										보	통(3점)	66.4		66.4		64.7		64.6						
										약	간	유	능	한	편	입(4점)	10.1		9.7		10.8		15.4	
										상	당	히	유	능	한	편	입(5점)	4.7		3.5		5.9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7^{***}, df=12$																								

측정한 결과, 444전체가구의 점수는 25점에서 98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68점(중앙값 69점)으로 상당정도 정규분포에 가까웠다. 농가유형에 따른 소비자기능점수별 분포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소비자기능점수는 농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P<0.01$)가 있었는데, 빈곤농가주부의 소비자기능점수의 평균은 비빈곤농가 주부의 점수 보다 상당정도 낮았으며 중위 이하 점수의 분포가 많은 반면, 중위 이상 점수의 분포가 적었다.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농가유형 외에 소비자기능

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즉 주부의 학력 및 연령, 주관적 관리능력, 가계관리자 유형에 따른 소비자기능의 점수를 알아본 결과를 다음의 표 7에 제시하였다. 주부의 소비자기능은 주부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P<0.001$)가 나타나서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자기능점수가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은 빈곤농가의 주부가 정보의 획득 및 처리, 기동성 등에서 불리하므로 소비자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관리능력은 '전혀 유능하지 못하다'에서 '상당히 유능하다'까지

표 5. 농가유형별 가계 관리자

(단위: %)

구	분	빈	곤	중	하	위	중	상	위
		주	부	39.2		32.1		39.2	
가	계	남	25.7		27.7		20.6		19.7
		부	29.7		35.7		33.3		34.8
		부	5.4		4.5		6.9		3.0
		공							
관	리	자	계	100.0		100.0		100.0	100.0

$\chi^2=5.33, df=9$

표 6. 농가유형별 주부의 소비자기능 평균점수 분포 및 최소유의차(LSD)검증결과

(단위: %)

구	분	전	체	빈	곤	중	하	위	중	상	위
소	비	자	기능	점	수	-50 미만	12.7	17.6	9.5	11.3	9.0
						50-60	15.8	21.6	16.4	10.4	10.4
						60-75	34.8	35.3	36.2	31.1	37.3
						75-85	23.1	16.3	20.7	34.0	25.4
						85- 이상	13.6	9.2	17.2	13.2	17.9
						F 값	4.23**				
평균	LSD	68	64a	69b	70b	70b					

** $P<0.01$

표 7. 농가주부의 특성과 가계관리자에 따른 주부의 소비자기능 평균점수 및 최소유의차(LSD)검증결과

구	분	평균	LSD	구	분	평균	LSD								
주	부	학	력	국	졸	이	하	63.5 a							
				중	졸	이	하	70.8 b							
				고	졸	이	상	71.2 b							
				F	값	13.9***									
주	관	적	관	리	능	력	진	혀	유	능	하	지	못	합	61.3 a
							별	로	유	능	하	지	못	합	60.2 a
							보	통	68.4 b						
							약	간	유	능	한	편	입	74.4 c	
							상	당	히	유	능	한	편	입	69.4 b
							F	값	7.5***						
주	부	연	령	- 4 0	세	미	만	71.2 c							
				4 0 - 5 0	세	66.5 b									
				5 0	세	이	상	61.2 a							
				F	값	10.1***									
가	계	관	리	자	주	부	69.3 b								
					남	부	편	62.3 a							
					부	부	공	동	69.0 b						
					부	부	공	동	69.0 b						
					기	타	65.8 a								
					F	값	5.4**								

** $P<0.01$, *** $P<0.001$

분포하는데 ‘유능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주부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주부에 비해 소비자기능의 평균점수가 낮아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 ($P<0.001$)를 보였다. 가계의 관리자에 따라서도 소비자기능 평균점수가 차이($P<0.01$)가 났는데, 주부가 전담하는 경우의 기능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부공동, 부부 외의 가족원, 남편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가계관리를 전담하는 경우 주부의 소비자기능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볼 때, 소비자와

관리자로서의 경험이 기능향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으며, 남편이 전담하는 비율이 높은 빈곤농가의 경우에 적용해 볼 때, 빈곤농가 주부의 관리경험부족이 소비자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기능점수는 12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가유형에 따른 영역별 소비자기능점수를 구매의 각 단계별로 제시한 것이 다음의 표 8, 9, 10이다. 여기서는 1~5점의 척도점수를 갖는 각 하위

표 8. 농가유형에 따른 구매전 단계에서의 영역별 소비자기능 평균점수 및 최소유의차(LSD)검증결과

구	분	빈	곤	중	하	위	중	상	위	상	위
지출비목별예산수립	F 값	2.30									
	평균 LSD	3.2 a		3.4 ab		3.6 b		3.4 ab			
정기적인저축	F 값	3.23*									
	평균 LSD	3.6 a		3.6 a		4.0 b		4.1 b			
구매품목의사전결정	F 값	3.56*									
	평균 LSD	3.9 a		4.2 b		4.2 b		4.3 b			
인적정보활용	F 값	2.35									
	평균 LSD	3.8 a		4.1 b		4.1 b		3.1 a			

* $P<0.05$

표 9. 농가유형에 따른 구매 단계에서의 영역별 소비자기능 평균점수 및 최소유의차(LSD)검증결과

구	분	빈	곤	중	하	위	중	상	위	상	위
광고의무조건적신뢰	F 값	0.71									
	평균 LSD	3.7		3.7		3.9		3.7			
충분한상점탐색	F 값	5.44**									
	평균 LSD	4.2 b		4.5 c		4.3 bc		3.9 a			
가격, 상표제조년월일확인	F 값	0.78									
	평균 LSD	3.8		4.0		3.9		4.1			
사용방법,주의사항보증내용확인	F 값	0.68									
	평균 LSD	3.8		3.9		4.0		4.1			

** $P<0.01$

표 10. 농가유형에 따른 구매후 단계에서의 영역별 소비자기능 평균점수 및 최소유의차(LSD)검증결과

구	분	빈	곤	중	하	위	중	상	위	상	위
영수증확인,보관	F 값	3.27**									
	평균 LSD	3.2 a		3.5 b		3.7 b		3.6 b			
가계부기록,확인	F 값	4.7**									
	평균 LSD	2.7 a		3.0 a		3.0 a		3.5 b			
충동구매로인한후회경험	F 값	1.57*									
	평균 LSD	3.2 b		3.3 b		2.9 a		3.2 b			
아프터서비스요청	F 값	2.22									
	평균 LSD	3.6 a		3.8 ab		3.7 ab		4.1 b			

* $P<0.05$, ** $P<0.01$

영역별로 소비자기능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구매전 단계

구매전 단계에서는 평소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로 예산을 세워 지출하는 행동, 장래의 특정 목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행동, 시장에 가기 전에 사야 할 물건과 양을 미리 생각하거나 종이에 적는 행동 및 물건을 사기 전에 비슷한 물건을 사용해본 사람에게 가격이나 품질 등을 물어보는 행동 등이 이루어진다. 구매전 단계에서 빈곤농가 주부는 비빈곤농가의 주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기능수준을 보여 금전관리 및 구매계획에 있어 소비자 기능수준이 낮았는데, 특히 지출비목별 예산수립 기능은 구매전 단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현금소득 등의 경제자원의 불안정성과 낮은 학력 등이 계획적인 가계관리 수행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인 저축 기능은 중하위 이하 농가의 주부와 중상위 이상 농가 주부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비빈곤농가의 주부간에도 소비자기능의 차이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원이 축적되어야 저축과 같은 장기적 가계관리행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빈곤농가의 주부가 예산수립 기능 외에도 구매품목의 사전결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낮은 교육수준과 소비자로서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가격 정보에 어두울 수 있으므로 구매물품을 확실하게 계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주변의 구매·사용경험자로부터 구매전에 정보를 획득하여 구매계획에 반영하는 인적정보 활용 기능에서 빈곤농가의 주부는 상위농가 주부를 제외한 비빈곤농가 주부보다 낮은 기능을 보여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매단계

구매단계에서는 TV나 신문, 기타 유인물 등의 광고에 나온 물건을 별다른 의심없이 구매하는 행동, 싸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여러군데 상점을 둘러보는 행동,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가격·상표·제조연월일을 구매전에 확인하는 행동, 물건의 구매전 또는 사용전에 사용방법·주의사항·보증내용 등을

확인하는 행동 등이 이루어진다. 빈곤농가주부의 구매 단계에서의 기능 점수는 구매 전·후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상점탐색을 제외하고 비빈곤농가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기능은 중상위 농가의 주부를 제외한 다른 주부들과 같은 수준으로, 광고에서 보여지는 상황이나 제품의 이미지 등이 농가주부 전반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상점탐색 기능은 전체 주부 모두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빈곤농가의 소비자기능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실제로 상점탐색노력에 따라 유리한 조건의 구매가 가능하며 주부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조건이 유리하여 추가적인 탐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위농가 다음으로 빈곤농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비빈곤농가의 주부들이 임노동이나 부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시간의 제약을 받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상표·제조연월일 및 사용방법·주의사항·보증내용을 확인하는 행동은 농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낮은 학력을 가진 빈곤농가주부의 기능점수가 타농가 주부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3) 구매후 단계

구매후 단계에서는 물건값을 치르면서 영수증을 챙겨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일정기간 보관하는 행동, 구입한 물건과 금액 등을 가계부나 일기 등에 적어 두어 자신의 소비생활을 반성하고 다음 계획수립시 참고하는 행동, 계획하지 않았던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입한 후 후회하는 행동, 사용한 물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선이나 교환, 환불을 요청하는 행동 등이 이루어진다. 영수증의 확인·보관 행동은 전체 주부가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빈곤농가 주부의 기능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가계부의 기록·확인 기능은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로 중상위이하와 상위 농가 주부간에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력과 연령 외에도 낮은 현금 지출 빈도로 농가주부들이 영수증의 수령, 보관 또는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주부의 소비자기능에 대한 주부의 학력, 연령, 기계관리자 유형 및 주관적 관리능력의 독립적 영향력(Beta)

통제변수 : 농가유형

주부의 소비자기능 총평균점수 : 67.41

주부	학		부		연		관		리		자		관		적		관		리		능														
	구	분	N	Beta	구	분	N	Beta	구	분	N	Beta	구	분	N	Beta	구	분	N	Beta															
무	학	국	191	-3.17	40	세	151	2.79	주	남	157	1.82	전	합	15	-4.43	유	능	하	지	못	합													
중	고	졸	151	-2.71	40	- 50	202	-.88	부	편	99	-4.60	별	못	62	-5.96	유	능	하	지	못	합													
고	졸	이	71	2.76	50	세	60	-4.07	부	공	137	1.69	보	통	272	-.54	간	유	능	합	합														
									기	타	20	-3.07	매	합	17	1.11	우	능	합	합	합	합													
												F=7.9***												F=5.1**											
												R ² =0.18												F=5.0**											

P<0.01, *P<0.001

충동구매로 인한 후회경험도 다른 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으나, 농가유형에 따라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빈곤농가의 경우 낮은 학력과 높은 연령으로 인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충동구매를 할만한 경제적 자원과 기회가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터서비스 요청 행동은 구매후 소비자 기능 중 가장 높은 점수 분포를 보이며, 농가유형에 따라 집단간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빈곤농가 주부는 아프터서비스가 중요한 내구재의 구매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낮은 교육수준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므로 기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주부의 소비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앞서 살펴본 일원분산분석의 결과 빈곤농가는 비빈곤농가와 구분되는 경제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갖고 있었으며 농가의 유형외에 주부의 학력, 연령, 관리자 유형, 주관적 관리능력이 주부의 소비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나타났다. 비빈곤농가와 구분되는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 수준 및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위해서 농가의 유형을 통제하고 중분류분석(MCA ;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4개의 변수가 소비자기능 점수의 분산을 1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각 독립변수가 주부의 소비자기능에 미치는 순효과를 다음 표 11의 Beta 값을 통해 알 수 있다.

0~100점으로 표준화한 주부의 소비자기능 평균 점수는 67.41로 주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기능점수가 높아져서 국졸 이하와 고졸 이상 사이에는 5.9점의 차이가 났고, 연령별로 볼 때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소비자기능 점수가 높아서 40세 미만의 주부는 50세 이상의 주부와 6.9점의 소비자기능 점수 차이를 보였다. 관리자 유형에 따라서는 주부가 전담하는 농가의 경우 주부의 소비자기능점수가 가장 높아서 점수가 가장 낮은 남편이 전담하는 농가의 경우와 6.4점이 차이가 났으며, 주부의 주관적 관리능력 평가별로 볼 때 약간 유능하다고 평가한 주부의 소비자기능 점수가 가장 높아서 별로 유능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주부 보다 11.7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주부의 소비자기능점수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이상의 독립변수들을 앞서 살펴본 빈곤농가의 특성과 관련시켜 볼 때 낮은 학력으로 인한 상황과악과 이해의 어려움, 높은 연령으로 인한 기동력의 부족, 가계관리 경험의 상대적 부족, 낮은 주관적 관리능력 및 이들 변수의 복합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이 비빈곤농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빈곤농가가 주어진 경제적 자원과 시장 환경하에서 어느 정도의 소비효율성을 발휘하는지를 농가주부의 소비자기능의 측정을 통해 파악하고, 소비자기능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수 및 그 영향력을 규명하여 빈곤농가의 경제적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인 빈곤농가를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단순히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농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소득과 순자산을 함께 고려한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선정한 후, 빈곤농가와 비빈곤농가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농가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기능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면접방식의 예비조사를 거쳐 질문지를 구성하고 수정하였고, 농촌진흥청과 도농촌진흥원의 협조로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4개도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12개 군을 추천받아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소득과 자산관련 자료 모두가 완전한 444부만을 빈곤농가와 비빈곤농가의 비교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패키지인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최소 유의차검증, 중분류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빈곤농가의 소비자기능은 비빈곤농가에 비해 낮았으며 비빈곤농가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기능의 하위영역별로 볼 때 빈곤농가의 주부는 지출비목별 예산수립, 정기적인 저축, 구매품목의 사전결정, 가격·상표·제조년월일의 확인, 사용방법·

주의사항·보증내용의 확인, 영수증의 확인·보관, 가계부 기록·확인, 애프터서비스 요청 등의 항목에서 모든 비농가 주부 보다 낮은 소비자기능 점수를 보였고, 인적정보 활용, 충분한 상점탐색, 가계부기록 확인 항목에서는 부분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2) 농가의 유형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부의 소비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학력과 연령, 가계 관리자 유형, 주관적 관리능력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18%였다. 빈곤농가 주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관적 관리능력과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으며, 가계관리의 경험이 부족하여, 소비자기능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과 발전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이 전반적으로 비빈곤농가 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하위 영역별로 기능점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계부의 기록과 확인, 지출비목별 예산 수립, 영수증 확인과 보관, 충동구매 등과 같이 특히 취약한 소비자기능의 향상을 위해 빈곤농가의 상황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적절한 교육 매체와 방법을 통한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농촌지도교육과 생활개선사업에 소비자교육내용을 강화하여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시장과 소비자의 관계,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관리, 경제생활과 관련된 정책 및 법률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빈곤농가 주부는 물론 농촌 소비자의 시장대항력을 키우고, 고도로 발전하는 산업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소비효율성 증진 및 가계의 경제적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경자·이기춘(1986). 소득계층별 비교를 통한 저소득층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53-66.
- 2) 김성숙(1989). 도시 저소득층의 소비자문제지각과 관련요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3) 농림수산부(1994). *농가경제속보*.
- 4) 성지미(1988). 저소득층의 소비자기능과 소비자문제인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5) 윤정혜(1986). 도시저소득층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67-88.
- 6) 이기춘(1985). 소비자능력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7) 정용선 · 이경옥(1990). 도시저소득층 가계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부산대 가정대학연구보고* 16, 9-22.
- 8) Andreasen, A.R.(1975). *The Disadvantaged Consumer*. N.Y. : The Free Press.
- 9) Barnhill, J.A.(1992). Market injustice : The case of the disadvantaged consumer. *J. of Consumer Affairs* 6(2), 78-83.
- 10) Caplovitz, D.(1967). *The Poor Pay More*. N.Y. : The Free Press.
- 11) Goodman, C.S.(1968). Do the poor pay more. *J. of Marketing* 32(1).
- 12) Goldman, A.(1976). Do Lower-Income Consumer have a More Restricted Shopping Scope ? *J. of Marketing* 40(1), 46-54.
- 13) Mason, B. & Smith, B.(1974). An Exploratory Note on Shopping Behavior of the Low-Income Senior Citizen. *J. of Consumer Affairs* 8, 204-210.
- 14) Ratner, C.(1968). Educating the low-income consumer : some viewpoint from an action program. *J. of Consumer Affairs* 2(1), 107-114.
- 15) Swagler, M(1979) *Consumer and the market*. 2nd ed.. Tronto : D.C. Health and Company.
- 16) Toyer, A.(1960). Consumer Education and Low-Income Families. *J. of Consumer Affairs* 2(1), 114-120.